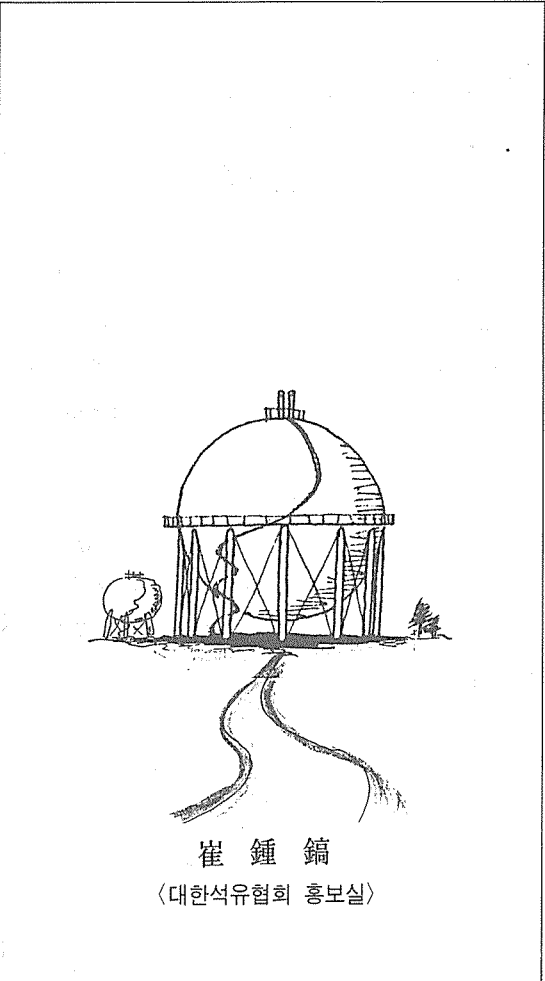


지난 12월 8일 석유협회에서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2박3일간의 정유공장 견학이 있었다.

총무과로부터 조만간 정유공장 견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았던 나는 약간의 설레임 속에서 그 날을 기다렸다. 전에 한두번쯤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보았던 정유공장들-. 그 거대하게

정유공장 견학을 마치고



崔鍾鎬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보였던 것들이 과연 실제로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과 설레임 때문이었다. 아뭏든 신입사원들을 주축으로 한 5명의 견학대상자들은 다함께 간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공장견학의 스케줄을 구상하면서 나름대로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8일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는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금 늦었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채비를 갖추고 집을 나서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니나 다를까 신촌에서부터 길이 막혀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것이었다. 점차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梨大입구에 이르러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초조해진 마음에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잡았다. 거북이걸음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벌써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차라리 눈을 감았다. 아! 좀더 일찍 일어날 걸. 마음속으로 한없이 나자신을 자책하면서 담배를 물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출발 5분전, 플랫폼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을 보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를 보며 우리들을 실은 기차는 동대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대구에서 추어탕으로 점심을 때우고 油公의 蔚山 공장을 보기위해 버스에 올랐다. 깨끗한 날씨 속에서 있는 정문옆으로 총을 멘 수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총을 멘 수위라! 난 그 낯선 모습에 눈을 떼지 못



麗川공장의 부둣가에서 기념촬영을 한 견학자들.

오른쪽부터 기획부의 김주현·김동규씨. 업무부의 사명환·송태중씨, 그리고 필자.

했다. 수속절차를 마치고 정유공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큰 도로옆으로 안전표지판이 보였고,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칼을 날리며 본관에 들어섰다. 안에서 잠시 기다리던 중 공보관의 소개로 마침 공장견학을 하기 위해 내려와 있던 油公 홍보과의 조환수씨를 만났다. 협회보의 업계소식 관계로 몇 번의 전화통화는 있었지만 이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고 보니 반갑기도 하고 공장견학의 실감도 더했다.

우리는 같이 공보실에서 슬라이드를 보았다. 슬라이드에서는 蔚山공장의 내역과 시설 및 앞으로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고 전반적인 기업이미지의 홍보도 담고 있었다.

차에 올라 공보관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공장견학에 들어 갔다. 蔚山공장은 약 250만평의 공장대지에 2,300명 정도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장은 여러 개의 단위 공장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단위공장마다 공정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관리실이 있는 것이 특히 눈에 띄었다. 외형상의 커다란 단위공장의 복잡한 처리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단지 몇 사람의 힘으로 운전된다는 사실이 여태까지 공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나의 유아적 사고에 수정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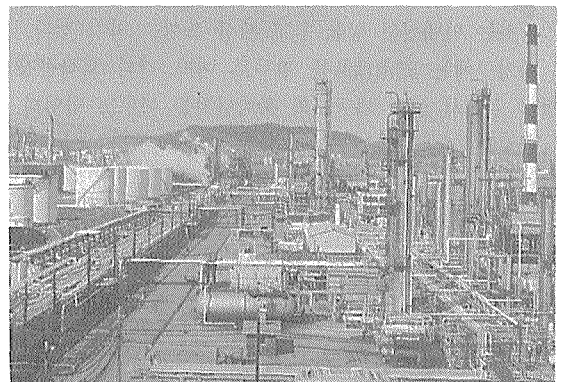
정유공장은 본연의 공정인 석유의 정제뿐만아니라 기타 관련된 화학제품의 공장까지 갖추고 있어 관심을 갖게 했다. 사업방향에 있어서도 관련 화학분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주 공장들과 더불어 공장 안에 철도시설과 부두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다. 우리나라가 석유의 전량을 수입한다는 점과 그 양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유공장의 입지조건이 항만시설을 갖춘 해안이어야 하는 특수성을 깨달았다.

정유공장에서는 타 산업과는 달리 공해방지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공해방지시설로는 미생물학적 폐수처리시설과 산업폐기물 종말처리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안전사고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곳곳에 사고예방을 위한 표어와 표지판들을 볼 수 있었다.

蔚山공장의 견학을 마치고 釜山으로 떠났다. 釜山 우레장에 방을 잡고 여장을 풀었다. 방은 큰 것을 하나 잡아 다섯명이 모두 거기에서 자기로 하였다. 여장을 풀고 회로 잘 알려진 광한리로 가는 택시를 잡았다. 택시안에서 기사분은 釜山の 교통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도로유지에 많은 미비점이 있고 새로 생긴 지하철의 역이 중심지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는 것들 이었다. 제2의 도시인 釜山도 교통난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광한리에 들러 두 마리를 핏감으로 골랐다. 회는 싱싱하였는데, 상위에 올라와서도 아가미를 움직여 신선미를 더했다. 회를 안주로 소주를 마시며 모처럼 신입사원들간에 회포를 풀었다. 견학에 대한 얘기, 나름대로의 고충, 회사안에서의 일등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유공의 울산공장 전경.

다음날 아침 8시에 숙소를 나와 麗水행 고속버스를 탔다. 날씨는 화창했고 차창밖으로 보이는 산하는 깨끗했다.

여수에서 광양만에 있는 湖南精油의 麗川공장을 찾았다. 蔚山공장과는 달리 조금은 황량해 보였고 간간이 광양만의 푸르름이 시야에 들어왔다.

슬라이드상영은 내방객이 겹쳐 보지 못하고 직접 공장견학으로 들어갔다. 공장의 구성 및 모양은 蔚山공장과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이 있다면 저유량의 변화에 따라 지붕이 움직이는 저유탱크였다. 이것은 저유시 지붕과의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가스가 발생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것이라 한다.

다음으로는 광양만에 위치한 湖南精油의 부두였다. 광양만은 본래 수심이 깊어 수십만톤의 배까지 접안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蔚山공장과는 달리 넓은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다 저멀리 여러 척의 유조선과 기타 배들이 떠있어 흡사 조그만 항구를 방불케 했다.

湖南精油의 부두시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데 안내원으로부터 시설물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주의를 받았다. 사진촬영은 안기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새삼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정유산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부두를 관리하는 직원은 얼마되지 않았는데, 부두가 공장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택시를 임대하여 출퇴근한다고 했다. 그리고 폭풍이 불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사람부터 대피시키게끔 내규가 정해져 있어 사람우선의 경영정책을 중시한다고 설명하는 안내원의 말을 듣고 새삼 느끼는 바가 컸다.

광양만에는 湖南精油를 필두로 여러 개의 화학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대규모의 화학단지를 이루고 있었다.



◇호유의 여천공장 전경.

첫째는 광양만의 수심이 깊어 공장가까이까지 배가 닿을 수 있다는 자연적 조건과 더불어 모든 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를 생산해 내는 대단위 정유공장이 옆에 있기 때문이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麗川지구의 공장들이 내는 세금 가운데 湖南精油가 95%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어 정유산업의 방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湖南精油 역시 공해방지에 신경을 써서 많은 시설을 공해방지에 할애하고 있었다. 각 정유사가 공해방지를 중시, 깨끗한 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은 타 산업과 구별되는 한 특징인것 같다.

이번 견학의 반은 차안에서 보낸 것 같다. 공장을 보는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공장을 보기 위하여 하루 보통 5~6시간을 차를 타면서 보낸 것이다. 이번의 공장견학으로 정유산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나마 높일 수 있었으며 또 모처럼의 나들이에서 견학자 모두는 조그만 청량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설명과 아울러 호의를 베풀어 주신 油公·湖南의 공장안내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

